

공주 숙종대왕 태실의 양식과 구조에 대한 연구

The style and structure of the King Sukjong's Placenta Chamber in Gongju

김 병 완

Kim, Byung-Wan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박사과정)

김 회 정*

Kim, Hoe-Jung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문화재관리부 책임연구원, 공학박사)

Abstract

The Joseon royal family considered the act of burying the placenta very important for various reasons. Accordingly, they developed their own ritual culture of burying the placenta based on the geomancy(Pungsu). In 1661, The King Sukjong's placenta chamber was built in Gong-ju, and later stone objects were added in 1683.

Since its establishment, the King Sukjong's placenta chamber have been continuously managed by the Joseon royal family, bu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placenta chamber was partially destroyed, and now only some stone objects remain in the original site.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original style and structure of King Sukjong's placenta chamber by focusing on the stone objects which were discovered through recent field surveys. In addition to that, the stylistic review of Joseon Dynasty's royal placenta chamber was conducted to secure a literary data basis and acquired data were comprehensively analyzed. As a result, Some of the original style and structure of King Sukjong's placenta chamber could be confirm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restore the authenticity of the royal placenta chamber damaged in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are expected to be a good example in the research methodology of historical evidence of other damaged royal placenta chambers.

주제어 : 태실, 숙종, 태실양식, 태실구조

Keywords : Placenta Chamber, Taesil, King Sukjong, Style of placenta chambers, Structure of placenta chambers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조선왕실은 태반이 개인의 길흉을 비롯한 조선왕실의 성쇠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여 풍수지리 사상을 바탕으로 태를 매장하는 독자적인 의례문화를 발전시켰다. 조선 왕실에서 태어난 왕자녀는 그 태를 길지에 묻고 비를 세웠는데, 그중 국왕으로 즉위한 인물의 태실은 묻은 자리에 석물을 더하여 봉하였으므로 이를 가봉태실(加封胎室)이라 하였다.¹⁾

조선 왕실의 가봉태실에 대한 연구는 그간 다수 수행된 바 있으나, 특정 태실의 원형을 검토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국왕 가봉태실에 한정하여 훼손된 석물의 원형을 검토한 연구는 문종태실과 장조태실을 대상으로 한 동원건축사사무소(2015) 및 심현용(2021), 광해군태실을 대상으로 한 심현용 외(2021), 태조태실을 대상으로 한 유기원·김기주(2017) 정도로 요약된다. 이는 현재 그 원형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태실 중 발굴조사 등을 통해 원형을 유추할만한 석물이 발견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 Corresponding Author : archdragon@cihc.or.kr

본 연구는 2022년 공주시의 재원으로 수행된 『공주 숙종대왕 태실 복원고증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1) 이하에서 서술하는 '태실' 용어는 '아기씨태실(阿只氏胎室)'로 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석물을 더한 가봉태실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아기씨태실의 아기씨는 아지씨, 아기씨 등으로 읽히나, 본고에서는 아기씨로 사용하였다.

공주에 위치한 숙종대왕 태실은²⁾ 숙종 탄생 직후인 1661년 아기씨태실로 조성되었고, 숙종 즉위 후 9년 뒤인 1683년에 석물을 가봉한 것이다. 숙종태실 역시 일제강점기 그 원형이 훼손되어 현재 태실비 2기와 사방석 추정 부재만이 태봉 상부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으나, 본 연구 과정을 통해 연엽동자주석 및 일부 석재가 추가로 발견되어 그 원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롭게 발견된 태실 석물을 중심으로 숙종태실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그 양식과 구조에 대한 원형을 도출하여 조선왕실 국왕의 가봉태실로서 진정성을 확보한 원형고증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현재 숙종태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봉 정상부에 가봉태실비, 아기씨태실비 그리고 사방석 추정 부재 총 3점의 석물이 전해질 뿐 기타 주요 석부재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의 태실 석물 관련 부재가 태봉 능선 등에 산재한 것을 본 연구과정에서 확인하였으며, 이는 숙종태실의 원형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다만 주변에서 발견된 석물을 종합한다고 하더라도, 중동석과 개첨석 등 태실의 주요 석부재가 발견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양식적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조선왕조 국왕가봉태실의 양식사를 정리하고, 태봉 및 그 인근에서 파악된 추가 발견 석물을 면밀히 검토한 뒤, 숙종태실과 관련된 문헌자료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양식 및 구조에 대한 원형을 고찰하였다. 다만 숙종태실지의 발굴조사가 실시된 바 없으므로 구조에 대한 분석은 지상구조에 한정하여 수행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의 범위로서 숙종태실과 관련된 유존 석물 및 추가 발견 석물을 1차적인 조사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태실의 양식사 검토를 위해 조선왕조 국왕태실 전체를 검토하였다. 문헌사적 검토를 위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주요 관찬기록을³⁾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태실 관련 의궤, 조선왕조실록 및 승정원일기, 태봉등록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되었으며,

‘태(胎)’, ‘태실(胎室)’, ‘태봉(胎封)’ 등의 키워드로 확인되는 전체 사료 중 숙종태실과 관련된 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2. 가봉태실의 양식사 검토

2-1. 태실석물의 구성과 명칭

태실은 유형적으로 석조문화재로 분류할 수 있다. 태실과 관련된 용어는 의궤를 기반으로 정리한 바 있으며⁴⁾, 본고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용어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태실의 명칭과 각부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위치와 기능을 고려하여 크게 기단부, 난간부, 중앙태석부⁵⁾ 등으로 구분하였다. 기단부에 속하는 부재는 전석(磚石)과 상석(裳石)으로, 위치에 따라 면석(面石), 우석(隅石)으로 구분하였다. 난간부에 속하는 부재는 연엽주석(蓮葉柱石), 연엽동자주석(蓮葉童子柱石), 횡죽석(橫竹石), 중앙태석에 속하는 부재는 사방석(四方石), 중동석(中童石), 개첨석(蓋簷石)으로 구분하였다. 태실은 예외 없이 모두 8각형의 평면으로 조영되었으며, <그림 1>과 같이 모식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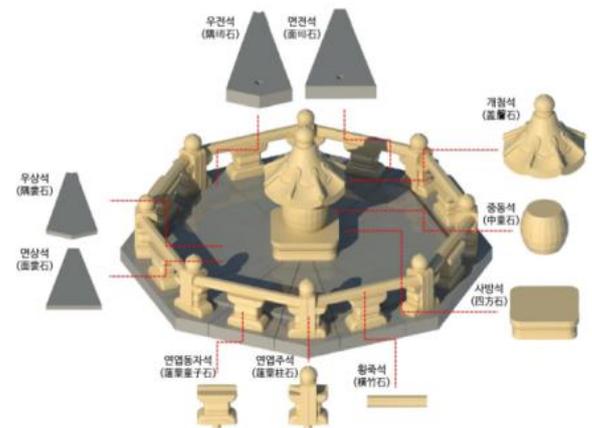


그림 1. 가봉태실 부재명칭도(김회정, 2015, 편집재인용)

2-2. 석물의 형태적 변화

(1) 검토대상 및 기준

석물의 양식사적 검토를 위해 검토대상은 가봉태실의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거나, 최소한 형태를 확인할

2) 현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정석 명칭은 「공주숙종대왕태실비」이다. 태실비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정된 명칭으로, 본고에서는 숙종태실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3) 숙종태실이 언급된 사찬기록도 일부 확인하였으나, 그 원형과 관련된 유의미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김회정, 「태실의 문화재지정 현황과 가치보존에 관한 일고찰」, 충청문화 충청문화, 제20권, 2015, 168~172쪽

5) 중앙태석이라는 용어는 심현용(2005)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사방석·중동석·개첨석을 묶은 용어가 별도로 없어 저자 본인이 명명한 것으로 밝혔다. 본 연구에서도 이 용어를 준용하여 사용하였다.

수 있는 간접자료라도 일부 남아있는 20개 가봉태실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⁶⁾

검토는 태실의 전체적인 양식을 파악하기 위해 부재별 세부 양식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전체 석물이 남아있지 않고 부분만 남아있는 태실의 경우에는 해당 부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태실 중 복원된 것은 복원 과정을 면밀히 살펴 원부재와 추정에 의해 복원된 석물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현재 멸실되었으나 사진·도면·의례 등 간접자료를 통해 원형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자료를 근거로 검토하였다.

(2) 중앙태석부

중앙태석부는 위치상 가장 아래에 사방석, 중간의 중동석, 가장 상부의 개침석으로 구성된다.

사방석은 기록상에 사방석으로 표현되었으나 실제 형태는 팔각과 사각 형태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검토 결과 팔각 평면의 사방석은 가봉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⁷⁾ 초기 조성된 태조태실(1393)부터 문종태실(1450)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성종태실(1471)부터 영조태실(1729)까지는 사각 평면의 사방석이 사용되었으며, 영조 이후 장조태실(1785)부터는 다시 일관되게 팔각 평면의 사방석이 사용되었다. 사방석의 의장 역시 시기별 차이를 보이는데, 태종태실(1401)까지는 특정 무늬를 조각해 넣지 않은 무문(無紋) 양식이었으나 세종태실(1419) 이후 중종태실(1507)을 제외하면 모두 특정 무늬를 시문하였다. 이후 현종태실(1681)을 전후로 하여 다시 무문의 사방석을 사용하였다가 장조태실 이후 다시 화려한 무늬를 새긴 사방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초기에는 사방석을 2단으로 사용하였으나 1450년 가봉된 문종태실부터 1단으로 변화한 뒤 그대로 지속되었다.

중동석은 비교적 시기별 변화 양상이 뚜렷하다. 중동석의 형태를 구분하자면 세종태실까지의 초기태실에서만 사용된 낮은 팔각기둥형에서 그 높이가 높아진

문종태실의 팔각기둥형, 그리고 배부름이 거의 없는 성종태실의 원기둥형을 거쳐 인종태실(1546)부터는 배가 부른 계란형이 일관되게 사용되었다. 이후 장조태실은 다시 팔각기둥형을 사용한 것으로 고증 복원되었으나, 정조태실부터 현종태실(1847)에 이르기까지의 후기 태실은 계란형보다 더 구형(球形)에 가까운 중동석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식적으로는 무늬를 넣지 않은 것이 초기태실부터 장조태실까지 일관된 경향이었으나, 정조태실부터 현종태실까지의 후기태실에는 <그림 2-b>와 같이 운문(雲紋)과 연환문(連環紋) 등을 사용하여 장식하였다.



그림 2. 중동석 양식 대표사례(a:정종태실, b:정조태실)



그림 3. 개침석 양식 대표사례 (a:정종태실, b:성종태실, c:명종태실, d:정조태실)

개침석은 구조적으로 중동석과 일체로 제작된 경우가 초기태실인 태조태실 및 정종태실에서 확인되나 문종태실 이후에는 중동석과 별석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형태적으로는 시기별 변화 양상을 보이는데, 태조태실부터 세종태실까지는 <그림 3-a>와 같이 복발형(覆鉢形)의 형태로 마루선만을 대략적으로 표현되었다. 이후의 문종과 성종태실은 <그림 3-b>와 같이 연엽(蓮葉)의 잎맥을 강조하여 이를 엮어놓은 형태인 복련엽(覆蓮葉)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종태실부터는 <그림 3-c>에 보이는 명종태실과 같이 지붕의 내림마루, 추녀선 등이 뚜렷하게 표현된 옥개석 형태를

6) 심현용(2015)에 의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가봉태실은 총 28기이다. 조선왕조 및 대한제국의 국왕(황제)은 총 27명으로, 이중 연산군, 효종, 철종, 고종 등 4명의 태실은 불명인 상황이며, 이외에 추존왕의 가봉태실 2기와 왕후의 가봉태실 3기를 포함하면 총 28기가 된다. 이외에 선조태실, 인조태실, 순종태실 등 3개소의 태실은 멸실되어 확인 가능한 태실 석물 및 이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세조태실은 세조의 명에 의해 아기씨태실에 가봉비만 세운 상황이며(세조실록), 단종태실은 본래 경북 성주 범립산에 있었는데 멸실되었고 이후 경남 사천의 인성대군 태실을 단종태실로 오인하여 가봉태실로 관리한 상황이다(심현용, 2012).

7) 이하 표기된 태실의 팔각 안 연도는 해당 태실의 가봉년도이며, 해당 태실이 언급된 최초 1회에 한하여 표기하였다.

취하고 있는데, 기존의 복련엽 형태는 축소되어 개첨석 상부로 올라가 정자석(頂子石) 받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정조태실부터 형태적 변화를 다시 보이게 되며, <그림 3-d>와 같이 개첨석 상부로 올라간 복련엽 형의 정자석 받침이 2단으로 만들어지고 옥개석형의 개첨석 전체를 덮는 형상으로 변화하였다.

(3) 난간부

난간부는 수직부재인 연엽주석과 연엽동자주석, 그리고 수평부재인 횡축석으로 구성된다.

연엽주석은 태실의 팔각 평면 각 꼭짓점에 놓이는 기둥석이다. 의례에 연엽주석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름과 같이 대체로 연잎을 새겨 넣어 장식하였다. 연엽주석은 크지 않은 양식적 차이를 보이는데, 초기태실의 연엽주석은 <그림 4-a>와 같이 대체로 조선왕릉에 사용되는 주석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왕릉의 주석은 영조대 편찬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 그 양식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데, 사각기둥형의 주신(柱身)을 중심으로 그 상부에 원수(圓首)-양련(仰蓮)-연주대(聯珠帶)-복련(覆蓮)으로 이어지는 장식을 올리고 주신 양쪽으로는 양련엽-연주대-연환문-연주대-복련엽으로 구성된 장식을 붙였다. 대표적으로 초기태실에 속하는 태조태실⁸⁾과 문종태실⁹⁾, 그리고 장조태실¹⁰⁾ 역시 이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대체로 태실의 연엽주석은 이와 같은 구성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태실에는 <그림 4-b>와 같이 왕릉의 주석과 같은 형태에서 주신 상부 양련-복련 장식이 제외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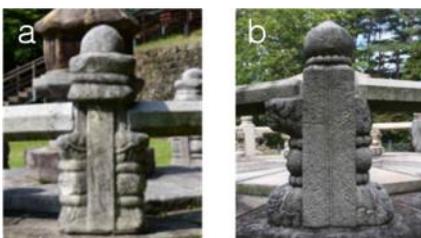


그림 4. 연엽주석 양식 대표사례 (a:태조태실, b:인종태실)

연엽동자주석은 평면 규모에 따라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연엽주석 사이에 1기씩 설치하였

다. 연엽동자주석 중 다수는 연엽주석에서 주신과 주신 상부의 원수형 장식을 제거한 장구형의 형태를 보인다. 양련엽과 복련엽이 넓게 상하단을 받치고 연주문을 상하에 둔 원어의문 형태의 주신이 양련엽과 복련엽 사이에 끼인 <그림 5-a>와 같은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후기에 이르러서는 <그림 5-b>와 같이 사각형의 주신 양측에 무늬만을 새긴 형태도 보이며, 정조태실 이후에는 대체로 <그림 5-c>와 같이 사각형의 주신 상부에 양련엽을 올리는 T자형의 형태를 보인다.



그림 5. 연엽동자주석 양식 대표사례 (a:인종태실, b:영조태실, c:순조태실)

횡축석은 연엽주석 사이에 수평으로 설치되는 팔각 단면의 부재로 양식적으로 유효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전체 횡축석의 숫자가 때로 8기에서 16기로 차이를 보이는데, 영조태실과 같이 전체 규모가 작은 태실은 연엽주석 사이에 횡축석을 1기씩 설치하여 총 8기를 사용하였으나 인종태실, 명종태실(1546) 등은 연엽동자주석 상부에서 횡축석을 맞대미음하는 방식으로 연결해 총 16기를 설치하였다.

(4) 양식사 관점에서의 숙종태실

형태를 기반으로 살핀 태실의 양식변화는 전체적인 양식의 변화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다만 각 부재별의 형태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나열했을 때, 일정한 흐름이 관찰된다.¹¹⁾(표 1 참조)

검토 내용을 종합할 때, 숙종태실의 양식은 대체로 석물별 일정한 형태 변화의 흐름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남아있지 않은 석물 가운데 중동석의 경우에는 계란형의 무문을 사용하던 시기 가운데 있고, 개첨석은 중동석과 별석으로 제작되었으며 옥개석형 양식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엽주석의 경우에는 상부 장식에 양련·복련을 사용하지

8) 1393년 가봉하였으나 석주는 1689년 교체된 것이다.
 9) 1450년 가봉하였으나 2015년 복원계획에 의해 복원된 것으로, 연엽주석은 예천읍사무소에 남아있던 것을 사용하였다.
 10) 1785년 가봉하였으나 문종태실과 같이 복원되었으며, 발굴조사 시 나온 연엽주석편을 토대로 추정한 것이다.

11) 다만, 1930년을 전후로 이왕직을 통해 전국의 태실들을 서삼릉으로 이장하면서 훼손되었던 태실들을 일제강점기 이후 복원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엄밀한 복원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완전성을 갖춘 태실만을 대상으로 양식사를 검토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부재별로 검토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수준의 양식적 흐름을 정리한 점은 유의미하다 할 수 있지만, 양식사적 관점에서는 가장 큰 한계점이기도 하다.

표 1. 양식사적 관점에서 가봉태실의 석물별 형태와 숙종대왕 태실

대수		1대	2대	3대	4대	5대	9대	11대	12대	13대	8대	15대	18대	19대	20대	21대	추존	22대	23대	추존	24대	
태주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성종	중종	인종	명종	예종	광해군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장조	정조	순조	문조	현종	
가봉년도		1393	1399	1401	1419	1450	1471	1507	1546	1546	1578	1609	1681	1683	1726	1729	1785	1801	1806	1836	1847	
사방석	평면 형태	팔각 사각																				
	단수	1단												☆								
	무늬	無有												☆								
	중동석	형태	팔각단주																			
개천석	형태	원주																				
		원구형													☆							
	무늬	無有												☆								
		중동석과	일체																			
난간부	연접동자주석	상부장식	왕릉형																			
		원수형													☆							
	주신	장구형													☆							
		기타																				
횡축석	개수	없음																				
		장구형													☆							
		T자형																				
횡축석	개수	8기												(☆)								
		16기													(☆)							

※ 작성기준 1. ■는 현존 석물이 있거나 의궤, 사진 등 간접자료를 통해 강하게 추정되는 경우. 2. ■는 현존 석물은 없으나 흔적 또는 부재 일부 등을 통해 추정이 가능한 경우. 3. ▨는 현존 석물이 없거나 고증자료가 빈약해 알 수 없는 경우. 4. ☆는 양식사적 관점에서 확실시 되는 경우. 5. (☆)는 양식사적 관점에서 긍정적 추론이 가능한 경우.

앞고 연주대 위에 원수형 장식만 올린 장구형 주석이 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접주석의 기본적인 양식은 사각기둥형의 주신 좌우로 연접동자주석과 같은 양식의 장식요소를 붙인 형태가 문종태실 이후로 예외 없이 지속되고 있어 숙종태실의 연접주석 역시 이와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횡축석은 시기에 따라 그 설치 개수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숙종태실은 16기에서 8기로 전환되는 시기로 실제 몇 기를 설치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숙종태실 관련 문헌자료 검토

3-1. 숙종태실과 다른 태실의 참조관계

태실 관련 사료를 살펴보면 각 태실의 조성 당시 전례를 참고하여 석물을 조성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전대왕의 태실을 참고하여 현 국왕의 태실을 가봉하거나, 국왕이나 대신의 판단 하에 훌륭했던 태실 전례를 정해 그 제도를 본받아 석물을 조성하는 등의 기록이 그것이다.

숙종태실 역시 다수의 참고 관계가 발견된다. 먼저, 숙종태실의 조성 당시 어떤 태실을 참고하였는지가 중요할 것이나, 관련된 기록은 불행히도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숙종태실과 거의 같은 시기에 조성하였던 현종태실의 경우, 명종태실 등을 참고하도록 전교한 기록이 있다. 현종태실은 숙종태실보다 불과 2년 전에 숙종 재위 시절 가봉한 태실이므로 참고할 가치가 있다.

또한 숙종태실을 전례로써 참고하여 가봉한 태실이 다수 발견된다. 숙종의 두 아들인 경종과 영조의 경우 자신의 태실 석물을 가봉할 때 숙종의 태실을 본떠 만들자고 논의한 기록이 있다. 경종의 경우 자신의 재위

기간에 경종태실을 가봉하지 못하였고, 영조대에 와서 영조태실과 3년의 시차를 두고 가봉하였으므로 경종태실과 영조태실의 석물제도는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충주에 있는 경종태실과 청주에 있는 영조태실의 경우 그 석물의 양식 및 규모 등이 매우 유사한데, 이를 토대로 볼 때 유사한 관계에 있는 현종태실과 숙종태실의 경우에도 석물양식 등이 유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조태실은 숙종태실의 석물을 직접 측량한 뒤에 이를 제도로 삼아 1/3을 축소하여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영조태실의례에 있다. 태봉등록 등에도 영조와 대신간의 논의를 보면, 영조는 태실석물제도를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대신들은 이를 반대하였으나 결국 영조의 의지가 관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숙종태실의 전례 : 명종태실과 현종태실

숙종태실과 긴밀하게 연결된 태실은 먼저 현종태실이다. 현종은 재위 당시(1659~1674년) 자신의 태실을 가봉하지 못했는데, 짧지 않은 재위기간(15년)이었으나 경신대기근(1670~1671년) 등의 여파로 인해 민심을 고려하여 가봉을 연기하였다.¹²⁾

이에 현종태실은 결국 숙종대에 와서 가봉하게 되는데, 숙종대에 와서도 기근의 여파가 계속되어 현종태실 석물의 가봉은 연기된다.¹³⁾ 현종태실은 태봉등록을 통해 숙종 7년(1681)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¹⁴⁾ 현종태실은 숙종 9년(1683) 가봉된 숙종태실과의 가봉 시차가 2년밖에 나지 않아 숙종태실과 양식적으로 매우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종태실은 현종조에 처음 태실 가봉을 논의할 때부터 실제 태실 관련 석물 공사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명종태실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현종조에 전례를 상고하여 태실을 가봉하기로 논한 이후, 현종 3년(1662)에는 명종태실의 석물제도를 그대로 본떠 만들고자 한 논의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이후 실제 석물 공사에서는 명종태실로 사람을 보내 석물 하나하나의 치수 및 양식을 기록해 이를 토대로 제작하도록 한 것이다.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으며, 이를 토대로 볼 때 현종태실의 양식은 명종태실과

매우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재 명종태실은 복원되었으며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원위치에 남아있으나, 현종태실이 멸실되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종태실과 숙종태실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가봉되었으므로 서로 유사한 양식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종태실은 명종태실을 참조한 것이 문헌상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비교할 만한 석물이 마땅히 남아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¹⁵⁾

표 2. 현종태실 가봉 관련 사료

연번	기록출처	주요내용
1	태봉등록 임인년(1662, 현종3) 6월 23일자	
2	현종실록 5권, 현종 3년(1662) 6월 23일 갑자 1번째기사	- 전례를 상고하여 추수 이후 태실을 가봉하도록 함 - 국왕 즉위 후 태실을 가봉하는 전례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
3	현종개수실록 7권, 현종 3년(1662) 6월 23일 갑자 3번째기사	
4	태봉등록 임인년(1662, 현종3) 7월 초 7일자	- 명종태실의 석물제도를 그대로 본떠 만들고자 함
5	태봉등록 임인년(1662, 현종3) 8월 초 4일자	- 석물제도를 참조하기 위해 선조태실과 명종태실의 석물을 측량하고 보고함 - 태봉의 협소함을 이유로 현종태실의 난간석 규모를 둘레 10여척 줄이고자 건의함
6	태봉등록 신유년(1681, 숙종7) 8월 3일자	- 명종태실로 사람을 보내 석물을 하나하나 치수와 양식을 기록하여 이를 토대로 현종태실을 제작하도록 함

그러나 기록상으로 이와 같은 참조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바, 명종태실과 현종·숙종태실은 양식적으로 유사한 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명종태실은 조선 전기 태실의 우수한 사례 중 하나로서, 앞서 분석한 양식사 검토 결과를 통해 그 양식을 정리해볼 수 있다.

현재 숙종태실에 남아있지 않은 개침석, 중동석, 연엽주석의 양식을 보자면, <그림 6>과 같이 명종태실의 개침석은 건축의 지붕 형태와 유사한 옥개석형을 보이고 있으며 복련엽형의 정자석 받침을 그 상부에 두고

12) 『태봉등록』 임인년(1662, 현종3) 7월 26일자 기사, 『태봉등록』 임자년(1672, 현종13) 12월 14일자 등

13) 『승정원일기』 260책(탈초본 13책) 숙종 3년(1677) 7월 13일 무자 기사 등

14) 『태봉등록』 신유년(1681, 숙종7) 10월 20일자 기사

15)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2016)에서 조사한 자료에 멸실된 현종태실의 태함과 연엽동자주석 등의 일부 석물들의 사진을 확보하였으나 비교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있다. 중동석은 무늬를 새기지 않은 계란형의 양식이며, 난간석의 연엽주석은 연엽동자주석과 같은 양식의 장식을 사각기둥형의 주신 좌우에 새긴 후 그 상부에는 연주대와 원수 장식을 올린 것을 볼 수 있다. 숙종태실의 경우에도 이를 참조한 현종태실과 함께 가봉되었기 때문에 양식적으로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6. 명종태실 현황

3-3. 숙종태실 후속 : 경종태실과 영조태실

앞서 숙종태실과 현종태실의 사료를 검토하여 숙종태실이 현종태실 및 명종태실과 양식적으로 유사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숙종태실 조성 당시의 사료를 검토해 숙종태실이 참조한 선행 석물제도를 살펴본 것이다.

한편, 같은 관점에서 숙종태실을 참조하여 조성한 후행 태실의 석물제도를 살펴본다면, 현재 남아있지 않은 숙종태실의 기타 석물에 대한 양식적 추정이 가능할 수 있다. 숙종태실 이후에 가봉된 태실 중 사료적으로 숙종태실을 언급하며 참조한 태실은 경종태실과 영조태실로 한정된다. 또한 경종과 영조는 숙종의 두 아들로써, 숙종 승하 이후 연이어 즉위한 두 왕이므로 시기적으로 숙종태실과 가장 가까운 후행 태실에 해당한다. 더불어 경종태실과 영조태실은 현종태실과 숙종태실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경종조에 경종태실의 가봉을 연기하다가 영조 대에 와서 3년의 시차를 두고 나란히 가봉하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경종태실과 영조태실의 문헌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숙종태실의 양식을 추론하기에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종태실은 최초 가봉 논의 이후 흉년으로 인해 가봉을 연기하지만,¹⁶⁾ 4년 정도의 짧은 재위기간 끝에 37세의 일기로 단명하며 경종태실의 가봉은 영조조로 미뤄지게 된다. 영조 대에 와서 경종태실과 영조태실의 가봉을 함께 논의하게 되는데, 경종태실의 가봉 논의가 실무적 단계에 이르렀을 때, 숙종태실의 의례를 참조하

여 이 사례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자는 기록이 있어¹⁷⁾ 숙종태실을 참조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3. 경종태실 가봉 관련 사료

연번	기록출처	주요내용
1	경종실록 15권, 경종 4년(1724) 7월 23일 갑자 1번째기사	- 태실가봉의 전례를 알지 못하다가 숙종조의 가봉 공사를 알게 되어 경종태실을 가봉하고자 건의함 - 그러나 숙종조에 흉년을 이유로 태실가봉을 연기한 전례에 따라 가봉을 연기함
2	비변사등록 경종 4년(1724) 7월 24일자	
3	태봉등록 갑진년(1724, 경종4) 7월 25일자	
4	태봉등록 병오년(1726, 영조2) 7월 23일	- 군인과 잡물 등은 공주 숙종태실 의례를 참조하여 이 사례에 따라 진행하도록 함
5	태봉등록 병오년(1726, 영조2) 9월 13일자	- 태실 가봉 공사를 완료함 - 전례대로 300보 지점에 화소비를 세우고 해자를 팠

영조태실은 태실 가봉 당시 작성한 『영조대왕태실석난간조배의궤(英祖大王胎室石欄干造排儀軌)』¹⁸⁾가 남아있어 보다 자세한 가봉 당시의 논의를 확인할 수 있다. 의례를 보면 영조 2년(1726) 경종태실을 가봉한 후 3년 뒤인 영조 5년(1729)에 영조태실의 가봉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영조는 태실의 규모를 삼분의 일 정도 줄이고, 태봉의 금표 범위도 줄이라는 전교를 내린다. 그러나 당시 좌의정 이태좌 및 우의정 이집등은 나라의 체례와 관계되는 일을 이처럼 줄일 수 없다고 반대한다.¹⁹⁾

영조와 대신은 논의 끝에 태봉의 금표 범위는 줄이지 않되, 석물의 규모에 대한 제도는 줄이기로 합의한다. 이후 빠르게 영조태실의 가봉 공사가 진행되는데, 기록을 보면 경종태실 조성 당시의 의례를 참조하였다는 언급이 있다.²⁰⁾ 다만 참조한 부분이 군인과 잡물 부분이어서 경종태실의 양식과 크기까지 참조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17) 『태봉등록』 병오년(1726, 영조2) 7월 23일자 기사

18) 본래 표지에 적힌 명칭은 ‘태실가봉의(胎室加封儀)’이며, 내지에는 ‘당저태실석난간조배의궤(當寧胎室石欄干造排儀軌)’라 적혀 있다. 당저는 당시의 임금인 영조를 가리킨다. 해당 의례의 내용 및 번역본은 남성면지편찬위원회가 2014년 편집한 남성면지에 수록되어 있어 이를 참조하였다.

19) 『영조대왕태실석난간조배의궤』, 1729

20) 『태봉등록』 기유년(1729, 영조5) 9월 초 1일자 기사

16) 『경종실록』 경종 4년 7월 23일 갑자 1번째 기사 등

표 4. 영조태실 가봉 관련 사료

연번	기록출처	주요내용
1	영조대왕태실석난간조배의궤	- 태실의 규모 및 금표 범위를 줄이라는 영조의 전교와 이에 대립하는 대신간의 논의가 계속됨 - 결국 금표 범위는 줄이지 않고 태실 규모는 줄이고자 함
2	태봉등록 기유년(1729, 영조5) 9월 초 1일자	- 경종태실 석물을 조성할 당시 의궤를 초출하여 기록하고 그대로 따라 시행토록 함
3	영조대왕태실석난간조배의궤	- 숙종태실의 옛 제도를 나아가 봉심하고 석물을 재어보고 돌아왔다는 보고 - 각종 석물의 척수는 숙종태실 석물의 구제(舊制)를 쟀 뒤 등분하여 줄임
4	태봉등록 기유년(1729, 영조5) 9월 초 5일자	- 석물의 크기를 줄이는 기준으로 삼분의 일을 언급

그러나 더욱 중요한 기록은 숙종태실을 상당히 참조했다는 점인데, 숙종태실의 실물을 봉심하고 측량하였으며, 각종 석물의 치수를 숙종태실의 규모에 등분해서 적용하였다는 사실이다.²¹⁾ 태봉등록의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등분한 기준은 1/3로 추정되지만²²⁾ 현재 남아있는 공주태실의 석물과 영조태실 석물의 크기를 비교하면 영조태실 석물이 조금 작으나 정확히 1/3만큼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영조태실의 가봉에 있어 숙종태실을 실제로 참조하였고, 그 치수까지 정확히 재어 영조태실의 조영에 참고하였다는 점은 숙종태실의 양식 추정에 큰 참조가 된다. 태실 가봉의 시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석물까지 측량한 뒤 공사를 시작한 영조태실의 양식은 숙종태실의 양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경종·영조태실은 현재 각각 충북 충주·청주에 소재하고 있다. 그중 영조태실은 1982년 복원되었으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주변에 흩어져 있던 석물을 재사용하고 이를 참조하여 복원하였고, 개첨석 등 현전하지 않는 석물은 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정복원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²³⁾

이를 토대로 경종태실과 영조태실의 양식을 숙종태실에 부재한 석물인 개첨석 및 중등석, 그리고 연엽주

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명종태실에서 분석한 것과 같다. 경종태실의 개첨석은 옥개형에 복련엽형의 정자석 받침을 올린 형태이고, 두 태실의 중등석은 모두 계란형의 무문이다. 또한 연엽주석 역시 연엽동자주석과 같은 양식의 장식을 연엽주석의 주신 양쪽에 붙이고 그 상부에는 연주대와 원수형 장식을 올린 양식을 하고 있어 숙종태실의 석물 역시 이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영조태실 현황

3-4. 횡축석 개수 추정

숙종태실 관련 문헌자료 중, 태실 석물의 구성의 일부를 추론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영조태실 석물의 조성 기준을 숙종태실로 삼았던 것에 대한 내용으로 숙종태실 가봉의궤의 내용을 언급한 태봉등록²⁴⁾의 기록이다. 여기서 구체적인 석물의 양식 및 형태 등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석물의 종류와 개수를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석물 62개, 12종류’라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가봉태실 의궤의 석물명칭을 정리한 이전 연구(김희정, 2015)의 내용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총 13종류의 석물이 언급되고 있어 상황에 따라 비교검토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사항은 명종태실과 같이 연엽동자주석이 8개 있고, 횡축석이 16개가 있는 경우로 이는 총 70개의 부재로 구성되게 된다. 두 번째 사항은 연엽주석 사이 간격이 좁아 연엽동자주석을 설치하지 않고 횡축석만 설치하는 경우로 가장 적은 54개의 석재로 구성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기록에서 언급한 62개의 석재로 구성되는 방식으로 영조태실과 같이 연엽동자주석과 횡축석이 각각 8개씩 설치되는 경우이다.

24) 태봉등록 기유년(영조 5년, 1729) 9월 초 5일자 기사 “상석(裳石)과 비석은 그 체제를 조금 줄이라는 상의 전교를 이미 받들어 전하였으므로, 신이 관상감과 예조에 있는 등록을 가져다 고찰해 보았더니, 숙종조 때, 공주의 태봉을 가봉할 적에 안배한 석물이 62개였는데, 명색(名色, 종류)은 12가지였습니다.”

21) 『영조대왕태실석난간조배의궤』, 1729

22) 『태봉등록』 기유년(1729, 영조5) 9월 초 5일자 기사

23) 청원군 내부문서, 「82문화재 보수공사 설계승인신청(1982.3.9)」, 참조

비록 종류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 부재 개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세 번째로 검토된 횡축석 8개 설치가 가장 근접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횡축석 개수 검토

연번	부재명	석재수			비고
		검토1	검토2	검토3	
	합계	70	54	62	
1	귀룡대석	1	1	1	
2	표석	1	1	1	
3	사방석	1	1	1	
4	중동석	1	1	1	
5	개침석	1	1	1	
6	우전석	8	8	8	
7	면전석	8	8	8	
8	우상석	8	8	8	
9	면상석	8	8	8	
10	연엽주석	8	8	8	
11	연엽동자주석	8	0	8	쟁점1
12	횡축석	16	8	8	쟁점2
(13)	금표석	1	1	1	쟁점3

4. 숙종태실 잔존석물 현황

4-1. 원태봉지 잔존석물

숙종태실은 충남 공주시 태봉동 산 64-9임에 위치해 있다. 해당 지역은 예부터 태봉동으로 불리고 있으며, 태실비가 위치한 산은 태봉산으로 명명되어 있다. 18세기 지도인 「여지도(輿地圖)」 및 19세기의 자료인 「호서읍지(湖西邑誌)」 등에도 태봉이라는 지명이 현재의 위치에 표시되고 있어 현재 태실비가 있는 태봉산이 원위치임은 확실해 보인다.²⁵⁾

숙종태실이 위치한 태봉산(원태봉지)의 정상부에는 가봉태실비와 아기씨태실비 그리고 사방석으로 추정되는 부재가 각 1점씩 총 3점이 잔존해 있다. 이 중 가봉태실비와 아기씨태실비가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숙종태실 관련 석물로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 태봉 정상부의 3점이 전부로, 이를 잔존석물로 칭하고 그 현황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였다.

먼저, 아기씨태실비는 비좌·비신·비두가 모두 일석(一石)으로 제작되었으며, 비수와 비좌에는 연화문을 새겼다. 전체 높이는 약 159cm, 비신의 폭과 두께는 각

25) 1930년을 전후로 조선총독부 이왕직은 전국의 태실을 서삼릉으로 이장하였으며, 숙종태실 역시 그 대상이었다. 당시 이장과 함께 현장의 태실석물은 해체된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태봉은 민간에 불하(拂下)되어 현재는 민묘가 입지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태실비와 사방석이 위치하고 있다.

각 54cm, 15cm이다. 비신의 전면에는 ‘順治十八年八月十五日卯時生元子阿只氏胎室²⁶⁾’, 후면에는 ‘順治十八年十二月二十五日辰時立²⁷⁾’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가봉태실비는 귀룡대석과 비신, 이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귀룡대석의 거북 고개가 좌측을 향해 틀어져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귀룡대석의 윗면 중앙에 장방형의 비좌를 두고 비신을 세웠으며 비신의 앞면에는 ‘主上殿下胎室’, 뒷면에는 ‘康熙二十二年十月十五日建²⁸⁾’이라 적혀 있어 가봉비의 건립연도가 1683년임을 알 수 있다. 가봉태실비의 전체 높이는 약 188cm이며 그 중 비신의 높이는 85cm이다.

사방석 추정 석물은 한 변이 138cm인 정방형 평면을 하고 있으며 잔존 높이는 약 23cm이다. 특별한 무늬가 없으며 단순한 사각형 평면의 대좌 형식이다. 본래 본석재는 그간 사방석으로 추정된다고 여겨졌으나, 양식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후행 태실인 경종태실, 영종태실의 사방석과 일치하므로 태실의 사방석으로 비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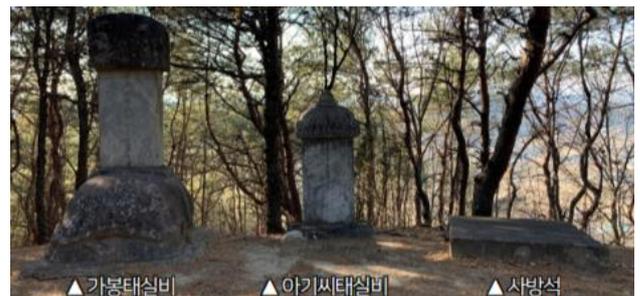


그림 8. 태봉 정상부 잔존석물 현황

4-2. 원태봉지 이탈석물

앞서 살핀 태실의 기본적인 형태구성상 많은 석물들이 원태봉지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석물 확인을 위해 주변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태봉 북측 능선 및 골짜기를 따라 산재한 태실석물 23점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확인된 석물은 연엽동자주석, 횡축석(편), 우전석, 면전석, 우상석, 면상석 등이다. 태봉 북측 밤

26) 순치18년(1661) 8월 15일 묘시에 출생한 원자아기씨 태실

27) 순치18년(1661) 12월 25일 진시에 세움

28) 강희22년(1683) 10월 15일에 세움

29) 이 석물에 대해 심현용(2015)은 사방석이 아닌 불명석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 펴낸 『조선의 태실』에서 숙종태실과 관련된 사진 중 측면에 양면이 새겨진 방형 석물이 사방석에 해당한다는 추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석물의 측면 일부만 보이고 있으며, 해당 사진을 통해 전체적인 평면 형태를 알 수 없고, 특히 양식적으로 숙종태실을 참고하였다는 영종태실의 사방석과 양식적으로 맞지 않아 다양한 의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무골 입구 부근에서는 우전석, 면전석과 함께 연엽동자주석 1점을 포함한 12점의 석물을 발견하였고, 태봉능선 지표상에서는 횡축석편 1점과 우상석, 면상석 등 11점의 석물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숙종태실의 석물은 태봉 정상부의 기존 석물을 중심으로 총 26점이 확인된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9>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9. 숙종태실 인근 석물 현황

(1) 전석

태봉 진입로 부근에서 발견된 관련 석물은 주로 우전석과 면전석 등으로 바닥석에 해당한다. 우전석은 8각형 평면의 모서리에 해당하는 부재로, 꺾인 6각형 형태를 하고 있다. 그 크기는 대체로 일정한데, 바깥 면의 한 변은 540mm, 안쪽 면의 한 변은 360mm였으며 길이는 610~720mm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부재의 두께는 420~470mm 정도로 측정되었는데, 치석된 바닥면의 거칠기를 볼 때 지면에 드러난 높이는 300m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전석에는 각 모서리에 설치되는 연엽주석의 축이 맞춤되기 위한 축구멍이 존재한다. 다만 조사된 우전석의 상당수는 뒤집혀 있는 상태로, 1점의 우전석에서 축구멍이 발견되었다. 나머지 우전석 6점에 대해서는 부재 수습 이후 관련 상태를 확인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축구멍의 크기는 지름 100~140mm로서 타원형에 가까우며, 그 깊이는 50mm 정도로 측정되었다.

면전석은 육안상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1점으로, 나머지는 부재 대부분이 묻혀있으나 형태상 면전석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완형의 면전석은 사다리꼴 형태로, 바깥면의 너비가 850mm, 안쪽 면의 너비가 500mm, 길이가 좌우 각각 660mm, 710mm로 측정되었다. 부재의 전체 높이는 깊게 묻혀있어 확인할 수 없다.



그림 10. 숙종태실 전석(a:우전석, b:면전석)

(2) 상석

태봉 능선부에서 발견된 석물은 대부분 상석으로 확인된다. 태봉을 중심으로 가까운 능선 부분에는 상석이, 보다 먼 골짜기에서는 전석이 분포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석의 경우 부재 길이가 상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더 쉽게 굴러 내려갈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발견된 우상석은 개체마다 표토에 묻힌 정도의 차이가 있고 크기 차이도 일부 있으나 가장 잘 남아있는 것을 중심으로 형태 및 크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상석은 전체적으로 길쭉한 6각형의 방패모양으로 치석되어 있으며, 바깥면 각 변의 길이는 430mm, 안쪽 면 각 변의 길이는 240mm, 전체 길이는 840mm 내외로 측정되었다. 두께는 약185mm 정도로 측정되었으나 드러난 두께만을 측정한 것으로 추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면상석은 총 4점이 확인되었는데, 우상석과 마찬가지로 개체마다 묻힌 정도의 차이가 있고 크기 차이도 다소간 있으나 가장 잘 남아있는 것을 중심으로 형태 및 크기를 살펴보았다. 면상석은 길쭉한 사다리꼴 모양의 부재로, 바깥면의 길이는 710mm, 안쪽 면의 길이는 260mm, 빗변의 길이는 1,260mm로 측정되었다.



그림 11. 숙종태실 상석(a:우상석, b:면상석)

(3) 연엽동자주석과 횡축석

연엽동자주석은 1점이 발견되었으며, 표토를 정리하여 외기에 드러난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세부분양의 각이나 형태상 파손 없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엽동자주석은 전형적인 태실석물의 연엽동자주석 양식을 보이고 있는데, 위아래로 양련엽과 복련엽이 새

겨져 있으며 그 사이로 연주대를 돌리고 중앙에는 연 환문을 새겨 넣었다. 연엽동자주석 상부에는 황죽석을 얹은 자리가 남아있는데, 이를 토대로 볼 때 8각형 황죽석 한 변의 길이는 약 90m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인 연엽동자주석의 크기는 너비 460mm, 두께 320mm, 높이 680mm 정도로 측정되었다.

이외에 황죽석으로 추정되는 파편이 1점 발견되었다. 황죽석은 8각형 단면의 난간석 부재로서, 연엽주석과 연엽주석을 건너지르며 연엽동자주석이 그 하단을 받친다. 발견된 황죽석편은 8각 단면 중 3면이 남아있는 형태로 깨진 상태이며, 길이는 100mm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황죽석의 잔존 한 변의 길이는 약 80mm 정도로, 앞서 살핀 연엽동자주석에 남아있는 황죽석이 놓이는 자리의 한 변이 90mm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그 홈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황죽석편은 속종태실의 구성부재일 것으로 추정되며, 전석과 상석의 부재 결합을 통해 연엽주석 간의 간격을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황죽석의 전체 길이도 추정해 낼 수 있다.



그림 12. 속종태실 연엽동자주석 그림 13. 황죽석편

5. 결론 : 속종태실의 양식과 구조

5-1. 속종태실의 양식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 속종태실의 규모 및 양식이 대략적으로 도출된다. 현재 새롭게 발견된 태실석물 및 잔존석물에 의해 그 양식과 규모가 확인된 석물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대석 중에서는 사방석이 남아있다. 사방석의 규모는 사방 한 변의 길이가 138cm, 높이가 23cm이며 1단 사각 평면의 무문이다.

난간부에서는 연엽동자주석 및 황죽석편이 발견되었는데, 연엽동자주석의 전체 높이는 64cm, 그 너비는 32cm로 확인되었다. 양식은 장구형에 의장은 상하에 양련엽과 복련엽, 그 사이에 연주대-연환문-연주대로 이어지는 무늬를 새겼다. 황죽석은 그 편을 토대로 볼 때 한 변이 8cm 정도인 팔각 단면임을 확인하였고, 문헌 기록을 토대로 총 8기가 설치되었음을 밝혔다.

기단부에서는 전석과 상석이 모두 발견되었고, 전석을 모두 조립하였을 때의 규모는 한 변에 약 193cm인 팔각 평면으로 예상된다. 상석을 조립하였을 때에는 전석의 전개도보다 조금 작은 한 변 155cm 정도인 팔각 평면이 나타나는데, 조립된 전석의 상부에 상석을 올려 깔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남아있지 않은 중앙대석의 중동석 및 개침석과 난간부의 연엽주석의 양식은 태실석물의 양식사 정리 및 문헌자료 검토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중동석은 양식사적 흐름상으로도, 태실 문헌상의 참조관계에서도 계란형의 무문일 것으로 판단되며, 개침석 역시 마찬가지로 분석을 통해 중동석과 별석이며 옥개형 상부에 복련엽형 정자석 받침을 두는 형태일 것으로 보인다.

난간부의 연엽주석 역시 양식사적으로도, 태실간 문헌상의 참조관계에서도 연엽동자주석의 양식을 준용하되 이를 연엽주석의 주신 양쪽에 반씩 새기고 그 상부에는 연주대와 원수를 올려 장식한 형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이 나타난다. 이처럼 현재 그 석물이 남아있지 않은 태실의 경우일지라도, 남아있는 석물에만 의존하여 양식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사적 흐름과 문헌자료를 통해 드러나는 참조관계, 그리고 기타 기록상의 단서를 통해 양식을 상당부분 비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속종태실 부재별 양식적 검토 결과

구분	양식	추정근거			
		석물	문헌	양식	
중앙대석부	사방석	- 사각 평면의 1단 무문(無紋)	○	-	○
	중동석	- 계란형 무문	-	△	○
	개침석	- 중동석과 별석 - 옥개형 상부에 복련엽형 정자석 받침	-	△	○
난간부	연엽주석	- 주신을 중심으로 장구형의 동자석이 반씩 좌우에 붙은 형태 - 주신 상부의 원수형 장식	-	△	○
	연엽동자주석	- 장구형 - 양련엽·연주대·연환문·연주대·복련엽 장식	○	-	○
	황죽석	- 8각 단면의 황죽석 8기	○	△	△
기단부	전석	- 각 8매씩 상석 아래에 설치	○	-	-
	상석	- 각 8매씩 전석 위에 설치	○	-	-

※ ○:확인, △:추정, -:미확인 또는 확인불가

5-2. 숙종태실의 구조 및 양식 추정도

숙종태실의 구조는 기타 태실 석물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된 전석 및 상석을 조립하였을 때, 규모상 전석 상부에 상석이 올라타는 방식으로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상석 조립 시 중앙에 공간이 생기는데, 이곳이 태함을 매장하는 자리였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빈자리 상부에 현재 남아있는 사방석을 올리면 정확히 빈자리를 가리는 규모이다. 사방석 역시 상석 위에 그대로 올려 중앙태석을 받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된 우전석 중 상면이 드러나고 상태가 양호한 전석에는 지름 100~140mm 정도의 축구멍이 발견되었다. 이곳에 연엽주석에 낸 축을 꽂아 맞추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바닥면밖에 드러나지 않은 면전석의 경우에도 같은 축구멍이 존재하여 연엽동자주석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설치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구조로 설치되었을 숙종태실의 양식적 추정도를 모사하면 <그림 14>와 같이 최종적으로 정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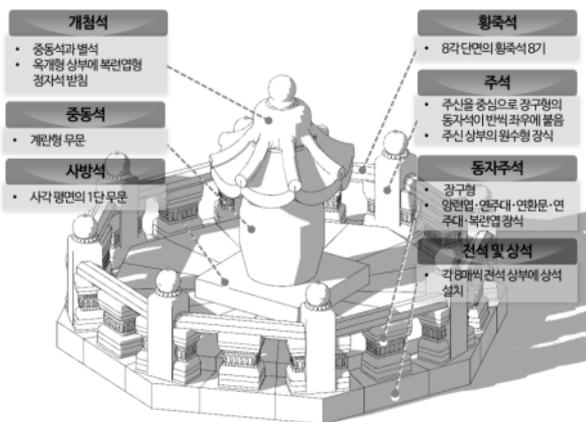


그림 14. 숙종태실의 양식 추정도

5-3.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조선왕실의 태실은 개인의 길흉을 넘어 왕실 전체의 안위를 위해 왕실 후손의 태를 안장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이자 건축문화였다. 특히 국왕으로 등극한 인물의 태실은 석물을 더해 봉하는 특수한 절차를 준수하였는데, 이와 같은 가봉태실은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28개소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제강점기 태실 석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서삼릉 태실의 조성, 그 이후의 관리 부실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 그 물리적 완전성을 보전하고 있는 태실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태실이라는 석조문화유산이 단독으로 조영된 것이 아닌, 조선왕실 전체를 망라하며 일정한 제도와 양식을 준수하며 이어져왔다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제 위치에 있지 않거나 물리적 훼손이 심각한 태실 문화유산에 대한 적절한 원형 고증 및 관리 체계의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멸실된 것으로 알려진 공주 숙종대왕태실의 원래 양식을 밝혀내기 위해 숙종태실과 관련된 자료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태실 석물 전체에 대한 양식을 추론하고 이를 도식으로 작성하였다. 특히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석물을 발견하여 이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향후 숙종태실 관련 의궤 등 추가 문헌자료의 발견 가능성 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 성격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추가적인 석물을 지표상에서 발견하였던 것처럼, 향후 전문 조사기관의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를 통해 정확한 숙종태실의 위치 및 지하구조를 밝혀내고 추가 석물을 발견하여 본 연구의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태봉등록』, 문화재청, 2019
2. 김희정, 「태실의 문화재지정 현황과 가치보존에 관한 일고찰」, 충청학과 충청문화, 제20권, 2015
3. 낭성면지편찬위원회, 『낭성면지』, 청원군, 2014
4. 동원건축사사무소, 『명봉리 조선왕실 태실유적 복원 기본설계 및 종합정비 계획』, 예천군, 2015
5. 심현용, 「성주 세종대왕자태실 연구」, 박물관연보, 2호, 2005
6. 심현용, 「예천 문종과 장조 태실의 구조와 복원」(예천 박물관 편, 예천의 태실과 조선시대 태실문화-예천박물관 학술총서, 2권), 민속원, 2021
7. 심현용, 「조선 단종의 가봉태실에 대한 문헌·고고학적 검토」, 문화재, 45권, 3호, 2012
8. 심현용, 「조선시대 태실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9. 심현용·강재현·김주영·최한태, 「대구 광해군 태실의 조성과 구조 복원」, 고궁문화, 14호, 2021
10. 유기원·김기주, 「조선 태조대왕 태실의 형식과 특성」, 건축역사연구, 26권, 6호, 2017
11.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조선의 태실 I』, 1999

12. 청원군, 『82문화재 보수공사 설계승인신청(1982.3.9.)』,
청원군 내부분서, 1982
1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 태실문화재 실태
연구』, 충청남도, 2021

접수(2022. 07. 07)

수정(1차: 2022. 08. 26)

게재확정(2022. 08. 30)

